

“전남 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로 지역 도자 역사 도약해야”

강진에서 최근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이 열렸다. 전남도,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이하 엑스포) 포럼은 엑스포 개최 당위성 정립과 이를 통한 도자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우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가 발표한 '전남 서남권 도자기엑스포 개최 당위성 및 도자산업 발전 방향'과 김희승 전 동신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의 '엑스포 개최를 통한 도자산업 관광 상품화 방안' 주제 발표와 다섯 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 토론회를 통해 엑스포 개최와 도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차별화된 도자 콘텐츠 만들어 MZ 세대 관광객 머무는 축제로”

강진서 엑스포 포럼 성료

영암·무안·목포 등 클러스터 조성
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추진 필요
전남도에 8월 개최 계획서 제출

강진군이 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은 강진의 고려청자를 비롯해 목포의 생활자기, 영암의 시유도기, 무안의 생활자기 및 분청사기 등 명실상부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중심지다. 특히 강진의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는 고려청자 생산의 거점으로 고려청자 요지가 사적 제68호로 지정돼 있고 고려청자박물관도 조성돼 있다. 박물관 일원에서는 매년 '강진청자축제'가 열린다.

◇도자 트렌드·생활 패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철우 전남대 교수는 서남권 도자의 역사성 및 도자산업의 현황과 함께, 2001년 개최된 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 2023년 개최 예정인 하동 차 세계엑스포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성공적인 생활도자 클러스터 조성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획자들과 끊임 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 도자기 업체와 생활 도자기 업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공예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예 작가나 도자 생산 업체에서도 도자에 대한 트렌드, 생활 패턴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1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등 서비스 방식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남은 예로부터 우수하고 뛰어난 도자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도자 클러스터를 활용해 세계



강진원 강진군수가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 강진 고려청자박물관과 스타벅스가 손을 잡고 출시한 고려청자 색과 문양을 담은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도자기엑스포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타당성 조사부터 개최까지 철저한 준비 필요=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희승 전 동신대 교수는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과 도자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축제와 엑스포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산업화를 추구하는 엑스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 엑스포를 개최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람회 성격과 개최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박람회 시설을 조성할 것인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관광객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일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1년 경기도에서 열렸던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현재 진행 중인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진군 등 전남 서부권 4개 시군은 오는 8월 전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는 도자산업이 전통 방식에서 산업화로 도약하고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자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500만 명 달성 등을 통한 관계 인구 늘리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도의 지원 아래 서부권 4개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지역 도자기 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유치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만들고 지역 도자기 역사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종합 토론

◇MZ 세대 관광객 방문하는 엑스포로 설계해야

조창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윤영근 전남도립대학 교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명칭에 대해 20년 전 경기도에서 이미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의 전통도자기 고장인 강진의 청자와 영암의 도기, 무안의 분청사기 및 산업자기, 목포의 현대산업도자 산업을 아우르는 명칭을 새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새 이름으로 '남도 도자문화 엑스포'와 '남도문화 도자엑스포'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이어 도자(문화)상품을 관광 상품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자 차도구와 차 문화, 테이블 웨어와 음식문화, 웰빙 도자와 숙박 문화 등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Z 세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도자엑스포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도자 유적 보존·정비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권혁주 민족유산연구원 원장은 전남 서남권의 도자 관련 유적의 '지정문화재 현황'과 '발굴조사 현황', '학술유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도자 유적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지하에 매장돼 있으며, 대부분 산사면이나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자 관련 유적을 보유한 지자체별로 보존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유적의 복원 시에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도자 전문 비극속 발굴유물을 보관할 역사 문화공간 유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기 도자기엑스포와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이승현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엑스포는 이미 경기도에서 동일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진, 목포, 무안, 영암 등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어서, 도자기 산지로서 유사한 조건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차별화된 지역성의 발굴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남의 '민중-민예' 성격의 생활도자기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도자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이 세밀하게 기획돼야 한다고 전했다.

◇방문객 확보 위해선 참여형 콘텐츠 개발 필수
오순환 용인대학교 교수는 2001년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경기 세계도자기비엔날레의 입장객 추이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오 교수는 "비엔날레 입장객은 최근 10년간 20만 명 전후로 고착화되고 있다. 경기도 사례의 경우 단순한 전시 및 체험 콘텐츠와 소비자의 욕구와 동떨어진 도자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자기의 활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관기관 공동 대응으로 추진력 확보해야

마지막 패널로 나선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본부장은 엑스포 최종 승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유관 기관의 공동 대응은 물론 기존 도자 박람회와의 차별성 및 추진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 본부장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맞는 행사로 기획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대부분의 도자축제가 봄·가을에 집중된 만큼, 여름 개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이 지난 5일 '전라남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월호

2022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2023 길 위에서 길을 찾다

- 걸으며 맞이하는 계묘년의 희망
- 숲, 바다, 하늘 친구 삼아 새해의 심호흡
- 삶과 시간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을 만나

신년 기획-2023년 문화계 새해는 비엔날레의 해

4월 광주비엔날레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다양한 기획전

올동진의 '시네마 역사' ① '해바라기서' '체르노빌'까지, 우크라이나 비극을 예견하다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러 개

신년 기획-2023년 문화계 새해는 비엔날레의 해

4월 광주비엔날레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다양한 기획전

올동진의 '시네마 역사' ① '해바라기서' '체르노빌'까지, 우크라이나 비극을 예견하다

예향 초대석

'문학의 울림' 전하는 평론가 **신형철**
"시는 읽는 게 아니라 겪는 것"

신년 기획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 트렌드 **RABBIT JUMP**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⑥ '도의 의인' 김광필의 학덕 기리는 대구 동동서원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③ 경기도 연천 & 강원도 고성 산 정상 '그리팅맨' 관광객에게 손짓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바꾸다

기획 '제주의 눈물 담은 진실의 그릇' 4·3평화기념관에서 만난 비통의 역사, 아린 사연들